

## 기사판

**어린이 뮤지컬 공연** 서울양재동교육문화회관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 불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플레이뮤지컬을 공연한다. (02) 571-8100

**무료 서예강좌** 한국불교문화원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체를 중심으로 한 서법실기와 이론을 한학과 결부시켜 교재비 없이 무료로 5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4개월간 강좌를 연다. 접수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02) 823-7086

**김급구호봉사단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는 재해발생시 파견하여 대민봉사와 구호활동을 실시할 불교계 김급구호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3일까지.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조계종복지재단으로 우송하면 된다. (02) 723-5101

**발마사지·컴퓨터교실** 성북구립장위실버복지센터는 발마사지 교실 및 왕초보컴퓨터반을 12일 개강한다. 성북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 (02) 913-3369



**직장인불교교리강좌** 동산반야회는 5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를 연다(사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산법당에서 불교의 정신유산인 팔만대장경 속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 (02) 732-1206

### 20면 상식 퍼즐 정답

매	난	국	죽	전	각
관	채	백	주		
매		심	중	팔	구
직	지	심	경	검	
	방				
	세	계	일	주	국
	특	권	적	운	

# 연등물결 전국 '넘실'

부처님오신날 맞아 5월 4~15일 전국서 시민축제

서울 5월 8일 연등축제 우정국로 개년도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고 있다. 전국 각지의 불교위원회와 시민연합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내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8일을 전후로 서울 동대문에서부터 종로에 이르기까지 제등행렬이 펼쳐지고 외국인 등연대회, 불교문화마당, 아름달마당, 대동한마당 등 시민과 어울러지는 '연등축제' 가 펼쳐진다.

**# 서울** 조계종불교위원회는 5월 8일 열리는 연등축제에 앞서 6일부터 부대행사 및 연등축제 전야제 격인 연등놀이를 펼친다. 부대행사인 전통등전시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강남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다. 봉은사는 전통등전시회 기간 동안 전통등의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누구나 참여해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제 전날인 7일에는 불족 분위기를 북돋을 연등축제 전야제가 우정국로에서 열린다.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약 80여 단체의 연희단이 모여 흥과 신명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 전야행사에는 7천명이 참가해 정음판 등을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축제의 분위기는 8일 절정에 달한다. 이날 우정국로에서는 불교문화마당 및 아름달·대동한마당 등 '연등축제'의 본행사가 펼쳐진다. 놀이마당에서는 풍물극, 영산재, 선무도, 수화 등을 함께 배워보거나 관불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제불교마당에서는 태극, 네 팔, 대만,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등의 수행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해마다 많은 불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전통문화마당에서는 온가족이 탁본을

인경하거나 천연염색, 불화시연, 불상개금, 연화그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동대문운동장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5만여 명의 제등행렬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불족법요식이 거행된다. 이어 오후 7시, 종로, 탑골공원을 거쳐 조계사 앞을 이르는 제등행렬이 펼쳐지고 9시 30분부터는 축제를 회향하는 대동한마당이 시작된다. 풍물패가 흥을 돋우고 꽃가마가 내리는 가운데 일반시민과 외국인, 행진참가자 모두 한데 어울려 연등축제를 마무리한다. 조계종불교위원회 (02) 2011-1744-8

**# 부산** 부산불교위원회도 "미래로! 세계로! 불교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5일 오후 5시에는 부산역광장에서 시민·불자들이 함께 하는 연합대행회가 있다. 이어서 부산역 광장에서부터 부산전역을 거쳐 부산불교방송, 범내골로터리, 서면로터리로 이어지는 제등행렬을 6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이날 부산의 광장에서는 전통차 무료공양, 연등 만들기, 낙동 가족축제 및 불교조각, 달마그리기 체험 한마당 등 다양한 불교문화행사가 열린다. 도자기 체험(7일 금정도자기체험센터), 삼광사 불족음악제(13일 삼광사), 성암사 연등축제 및 산사음악회(15일 성암사) 등 다양한 불족행사가 5월

중순까지 부산 곳곳에서 이어진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 867-0501

**# 경기** 경기도는 서울과는 달리 각 지역에서 개별로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대부분의 지역이 15일에 연등축제를 하는데 반해 수원에서는 5월 8일 만석공원에서 연등축제 및 불족문화제를 갖는다. 또 만석공원수지에서는 5월초까지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꽃심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면 문화센터에서는 5월 4일 불암사가 주최하는 연꽃 노인잔치가 있을 예정이다. 양평에서는 15일 양평중학교등학교에서부터 군청앞사거리에서 이르는 구간을 제등행렬하며, 같은 날 평택시민들도 시내를 돌며 연등축제를 벌인다. 경기양평불교위원회 (031) 772-8776

**# 충청**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불교음악회(5일 보문산 야외음악당의 불교전통등 전시회(6일 신덕신인당)를 개최하고 불족전야제(7일 그리타워 예식장)를 연다. 이어 보문 중·고등학교에서 8일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한편 천안과 청주에서는 각각 천안불교사암연합회의 불족 대법회 및 연등축제(8일 천안농고 운동장), 청주청원불교연합회의 휘호 그리기 대회(5일 화상사) 및 불족 사진전(6일-13일, 예술의 전당)이 차례롭게 펼쳐진다. 청주 연등축제는 13일 청주 무심전에서 시작되며 이날 청주 시내 곳곳에서는 연꽃등을 시민에게 나눠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대

전불교사암연합회 (042) 537-8214

**# 전라** 광주사암연합회는 8일 광주공원 내에서 연등축제를 갖고 15일 각 사찰별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연다. 전주의 불족행사는 12일 절정에 달한다. 호국충경사가 주최하는 연등제가 4일 35사단 병영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6일 전북학생회관 공연장에서 불족 연합합창제로 음성공양을 올리고 12일 전주 시청광장에서 연등축제를 열기 때문이다. 29일에는 어린이·청소년 불자들을 위해 청소년 모악축제(금산사 특설무대)가 열린다. 전주불족위원회 (063) 277-3497

**# 경북 대구** 대구불족위원회는 5일 동화사에서 '꿈이 있는 문예마당'을 개최하고 15일에는 '자비광명을 기원하는 다종법회'를 경성강영공원에서 봉행한다. 포 상주·고령·의성·성주·구미·포항·안동불족위원회도 가족들 만들기, 국립극악원 초청공연, 불족음악회 등의 행사를 10일을 기점으로 각 지역마다 진행한다. 대구불족위원회 (053) 629-9783

**# 강원** 강원원주사암연합회는 5일 각 사찰별로 불족어린이 백일장을 연다. 또한 10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연등축제에 앞서 5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불족담 점등법회를 봉행한다. 한편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휘호대회, 문화제 그리기, 걷기대회, 환경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강원원주사암연합회 (033) 732-4800 이은비 기자 renny@buddhapia.com

## 전시

### 붓끝으로 녹여 낸 신심의 결정체

조영희 전통불화전 5월 4일부터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수상자인 고석 조영희 씨가 10여년에 걸쳐 그린 불화들을 전시한다. 5월 4일부터 10일까지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리는 <전통불화전>은 조씨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려온 불화 50여점과 병풍 10여 개가 전시된다.

작품중 채색병풍, 금니병풍 등은 선이 굵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민속박물관에 소장 중인 <금니백팔방> 병풍을 비롯, 예전에 소실됐던 금박기법을 조씨가 복원해 그린 금박병풍들이 전시된다. 조씨가 구와 야교로 돌출을 한 후 옷칠을 하고 금을 덧입힌 <104나한도>는 그리는 과정만 꼬박 1년이 걸렸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12지병풍>은 금박바탕에 석색과 경명주사로 그려, 화려하면서도 무게가 느껴진다. (02)730-5454



조영희 작 '오백나한전'

## 앨범

### 삼라만상 이어주는 대나무 향기

이생강 60주년 기념 앨범 '죽향' 발매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죽향(竹香) 이생강의 60주년 기념 음반 <죽향(竹香)>(사진)이 출시됐다. 이씨는 1958년 태어나 호적명인인 부친 이수덕의 영향으로 5세 때부터 피리와 단소를 익히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 대한민국 7인의 명인에 선정, 1973년 국민훈장 목련장 서훈, 1984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친 KBS 국악대상 등에 선정되어 마침내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이씨는 특히 대금산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앨범에는 대금뿐만 아니라 피리, 단소, 태평소 등 모든 국악관악기에 뛰어난 연주력을 갖추고 있는 이씨의 발표작 중 '이생강 류 대금산조'를 비롯해 피리산조, 통소산조, 단소산조, 소금독주, 태평소 시나위 등이 빠짐없이 수록됐다.



## 버림받은 4남매 어떻게 살았을까?

아무도 모른다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아키라 유아 등 등급 전체 관람가

도쿄 번두리의 작은 아파트에 철없는 엄마가 4남매를 데리고 이사를 온다. 각자 아버지가 다르고 아키라 이외에 동생들은 출생신고도 안했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날 엄마는 재혼을 위해 집을 나가고 장남 아키라는 엄마가 남긴 적은 돈으로 살림을 꾸려 보지만 돈은 금세 바닥이 난다. 전기도 물도 끊긴 상황에서 아이들은 힘겹게 살아간다.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지극히 비참한 삶을 그리면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떠맡은 소년 가장 아키라와 세 남매는 자신을 버린 부모와 아무런 관심과 보호의 손길도 외면한 사회를 원망하지 않고 곳

곳이 삶을 이어간다. 그렇다면 영화 밖 우리 주변의 삶은 어떤가. 정서가 매마른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별 관심조차 없는 듯 보인다. 얼굴을 마주치고 지나가도 그냥 지나칠 뿐이다. 옆집 사람의 직업이 뭘지, 나이는 몇인지, 굶고 지내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현대인들의 극에 달한 이기심과 소외계층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노병철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동자승캐릭터 스티커 세트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귀여운 동자승캐릭터 스티커 세트를 소개한다. 다양한 동자승의 모습을 담고 있는 캐릭터 스티커는 어린이 선물로도 좋다. 불족위원회 추천상품.

스: 크기(60X156mm (30매) 3만원, 중: 크기(130X176mm (60매) 6만원

**방송 프로그램**

29일 14:05 낭만라디오

39일 15:00 음악의 마을

49일 09:05 행복만 미소

59일 11:05 아름다운 초대

69일 09:05 거룩한 만남

79일 07:05 아침저녁

89일 07:05 사랑의 정경다리

29일 08:00 명상음악산책

39일 15:10 명상음악

49일 23:35 한국인의 명화

59일 14:25 불교TV메디칼

69일 16:40 향토음식기행

79일 16:05 부처님경쟁이야기

89일 15:2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5월 7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5월 8일 아침 9:45~10:30) 동양 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